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 103:1

ברכי נפשי את-יהוה

나라키 나프쉬 에트-아도나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Shalom

שְׁאֵלוּ שְׁלוֹם יְרוּשָׁלַם

Sha'alu shalom Yerushalayim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알리야

이스라엘의

회복과 공활을 구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렘 31:7]

감사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찌이다
[시 103:2]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슥 3:14). 아멘!

교회 중보기도 제목

1. 추수감사절 부흥 성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제: 청교도 감사 신앙을 배우자!
2. 한기홍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충만, 말씀의 능력 및 시대적 사명 감당, 영적부흥의 대역사가 일어나도록(영력, 지력, 체력이 모세처럼 평생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김광신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세계 선교사역을 위해 (한국에서의 사역을 위해)
4. GMI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하여
5.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도록 (성도들의 건강과 영적 생활을 위해)
6. 일천번제 특새와 성경 다독 읽기, 성도 양육 과정에 전 성도가 동참하여 은혜 받도록
7. 주일예배(1부~4부)와 금요성령집회를 통해 가정마다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8. EM 과 교육부를 위하여
9.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회복과 미국의 청교도 신앙회복을 위하여
10.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 등을 위하여



† 추수 감사절 부흥 성회 : 청교도 감사 신앙을 배우자! (11/16-21)

† 성경 다독 읽기 - 7/27(월)~11/30(월), [127 일간]

† 그레이스 인카운터(10/18~12/6)

GMI 선교지 기도제목

사역	건축중이신 선교사님	항암중이신 선교사님	병환중이신 선교사님
• 박원근 선교사님(케냐)-교회 옆에 땅으로 모슬렘 사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 백승환 선교사님-아르메니아의 전쟁이 종식 되도록 • 코로나로 한국 체류 중이신 모든 선교사님이 속히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 이선교사님(베트남)-복음전파와 영육 간 강건하도록 • 조선교사님(중국)-코로나로 어려워진 청소년 사역이 재개 되도록 • 고선교사님(중동)-무슬림들의 위협과 코로나로부터의 안전	• 김경순 선교사님 (노보시비르스크)-성전건축 • 김정훈 선교사님 (B 국)-성전 건축 • 이광섭 선교사님 (필리핀 기쁨의 교회 건축 마무리) • 감득원 건축선교사님 (태국 선교센터 건축) • 최윤섭 선교사님 비타 교회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 이예신 선교사님 (A 국)-입원치료중이십니다. • 유인숙 선교사님 (C 국) 선혼 3 기 • 엘레나 찬양사역자 (블라디보스톡 교회) • 이해영 선교사님(T 국)-암이 왼쪽 엉치뼈로 전이됨: 깨끗이 치유되도록/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도록	•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사할린) 코로나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경 선교사님께서는 매일 혈압이 밤마다 200 정도가 나와 두통과 심장이 아프고 배가 굳어지는 것 같고 복통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 강명철 이지향 선교사님(I 국) 강선교사님은 우울증 약을 복용한 후 차도가 있습니다. 이지향 선교사님도 공항장에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 강영순 선교사님- 류마틱 자가 면역 결핍증 통증(한국행-치료 예정) • 김봉년 선교사님(첼라빈스크) 전립선 제거 수술 예정 • 양창모 선교사님(T 국)의 파킨슨병을 치유해 주시도록

미국을 위한 기도



1. 청교도 400 주년 기념 청교도 신앙과 감사회복을 위한 온라인 추수 감사절 **영적 대각성 부흥집회**(11 월 16-21 일)를 위해
 - a. 많은 교회들이 개교회 부흥회로 참여함으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체험하도록
 - b. 미주 한인들이 제 2 의 청교도로 준비되어 미국을 변화시키도록
 - c. 참가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도록
2.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겸손함과 탁월함을 갖춘 해외 선교 분야 뿐만 아니라 가정을 포함한 모든 사회 분야에서 그들의 소명을 다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기독교인들이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성품을 다하여 용기 있고 근면하게 하소서
3. 기독교인들이 **여호와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결한 삶을 살도록 하소서.** 삶과 세계관이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정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외 뿐만 아니라 그들 지역사회에서도 **잃어버린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위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4.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며 치유와 평안함을 느끼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깨어진 **가족들이 회복하게 하소서**
5. 우리 **교회**가 성경에 따른 건전하고 복음 중심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소서. 또한 그들의 지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회가 사용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 주소서.
6. 교회가 기도와 회개로 가득 차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지역교회에서 리더들을 훈련시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내게 하소서. 지역교회가 미국에서 기도, 회개, 회복, 부흥의 시발점이 되게 하소서.
7. 다음 세대의 본보기이자 멘토로써 교육자들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학교에서 성경공부나 기도모임을 활성화되어 **교육기관들이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8. **비즈니스, 회사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공정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관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공정하고 진실하고 친절하게 대하게 하소서.
9.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 합니다. 대통령, 행정부, 대법원, 의회, 시장, 등 정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소서.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소서.**
10. 우리 나라의 오만과 탐욕 그리고 무관심에 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며 악한 길 돌아서서 그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11.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대 부흥을 허락 하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영적임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대하 7:14]

코로나 통계(11/17/20)

세계 : 5 천 4 백 만명

미국 확진자: 천 백 만 명
사망자: 25 만 명

캘리포니아

확진자: 백 만 명
사망자: 18,254 명

Orange County

확진 65,234 명/
사망 1,514 명

“주님, 이 나라를 공화리 여기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미국 대선을 위한 기도

미국 대선을 위한 기도제목 “A New World” or “A New World Order”

‘나니아 연대기’의 나니아로 들어가는 옷장 문 앞에 서 있는 교회

미국 대선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지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혼돈 속에서 누구의 소리를 듣고 어느 곳을 바라봐야 하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팩트 체크: 현재 조 바이든이 승리했다는 미디어 보도는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미국의 민주적인 투표 절차에 의해 12월 8일까지 개표와 관련된 어떤 분쟁이든 해결하고 선거인단을 선출하며, 12월 14일에 선출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내년 1월 6일 의회 투표 결과 승인을 거쳐 1월 20일 새 대통령이 취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걸 때마다 미디어는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며, 사단은 미디어를 이용해 사실인 듯 아닌 듯 마혹으로 민주주의적인 법적 절차를 뺏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11일은 미국 민주주의의 씨앗이 된 ‘메이플라워 서약’의 4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영국 플리머스항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종교의 자유, 새로운 세상(New world)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상륙하기 며칠 전인 11월 11일(올리우스력)에 청교도들은 신 대륙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을 명시한 ‘메이플라워 서약’을 작성했고,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 밑에서” 모든 인권이 존중되도록 다수결 원칙을 따르겠다고 서약한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400년간 청교도들이 가지고 온,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에 반대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동성애 합법화, 낙태 허용,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것 등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 출애굽한 것처럼 미국이 민주주의를 통해 세상과 타협했던 것을 버리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의 교회가 회개의 마무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에서 벗어난 법들을 다시 되돌려 봐야 합니다. 400년 동안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 있던 교회들이 출애굽하고 미국이 여호수아 24장 14-15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은 나니아 연대기의 ‘지금의 세상과 다음 세상으로 연결시켜주는 옷장’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옷장을 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마지막 때 대부흥이 오는 세상인 ‘A New World’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 시스템 안에서 교회가 핏박받는 세상인 ‘A New World Order’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로 판가름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갈림길 위에서 우리 교회는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대선 가운데 모든 부정부패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재선이 된다면 A New World Order(적그리스도 시스템 안에서 교회 핏박 시작)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기도 포인트

- †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가 일어나도록. 마태복음 16: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교회의 본질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교회가 본질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중재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 † 중보기도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시간대를 놓치지 않도록. 코 앞으로 다가온 심판의 시간대가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긍휼의 시간을 열 수 있도록.
- † 교회와 중보기도자들이 욕심으로 인하여 마혹되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한이 있는 영역에서, 기도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미국, 양극화 현상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미국 사회의 분열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소리(VOA) 4월) VOA는 인종 문제를 둘러싸고 시위가 이어지고, 코로나 19 대응 방안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는 등 진영간 대립이 과거 어느 때 보다 고조됐다고 전하면서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올해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 특징적인 현상은 미국사회의 분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통해 분열의 특징을 보면 정치적 관점의 차이는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깊이 파고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 중 70%가 트럼프 지지자와는 데이트를 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대학의 정치학 교수는 “지금 미국은 매우 양극화된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언론들은 분열된 미국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때 보다 사회적 분열이 심각한 미국의 영혼들이 분노와 다툼이 아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 † 부정 선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혼돈 속에 있는 미국 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 † 주님, 지금 미국은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정선거의 의혹들을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그 결과를 통해 서로 분쟁하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시간을 갖길 소원합니다.
- †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딤후 2:5-6,8)” 의 말씀처럼 각기 원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섰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미국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 †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 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미국 땅에 뜻을 이루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감염 급속도로 확산. 최근 7일 동안 100 만 명 추가 확진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최근 7일 사이 무려 100 만 명이 추가 감염됐다. 이에 따라 많은 주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공립학교의 대면수업이 중단되는 등 대응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 등은 다른 주로의 여행 금지를 촉구하고, 해당 주에 도착한 모든 여행객들에게는 2 주간의 자가격리 권고
- 뉴욕 시는 모든 공립학교의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재택수업으로 전환
- 오리건 주는 모든 기업들에 2 주간 재택근무 의무화, 식당과 술집에 배달을 제외한 모든 실내영업을 금지
- 35 개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잘못된 일들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동성애와 남녀 외에 수 많은 성별을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 전 세계는 에이즈 감소... 한국은 매년 폭발적 증가추세를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회복 시켜 주옵소서.

신촌 거리서 태아생명보호캠페인 개최

청년 대표로 아름다운피켓, 케이프로라이프 청년연대, THE SWEETEST와 기성 세대 대표로 에스더기도운동이 연대하여 태아 생명보호캠페인이 최근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개최됐다. '생명 존중'과 '약자 편에 서겠다'는 신념으로 모인 이들은 '낙태죄 수호' '태아 생명 존중'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가장 약자일 수 있는 태아와 여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려 했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생물학자 96% 수정란도 생명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함께 "준비되지 않은 임신 예방 정책, 비밀출산법, 싱글맘 지원, 남성책임법 마련을 요청합니다" 등 저마다의 피켓을 들었다.

- 연세대 언더우드 동상에 악마 숭배 '헬러원 분장'... 학내 구성원도 이에 비판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한 연세대학교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 동상에 악마를 숭배하는 '헬러원 분장'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0 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헬러원 분장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학교의 건학이념이나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기독교대학인 연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세대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 공산주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주체사상의 압제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 북한에 구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북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홀로 높이는 그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 복음적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경제난'에 목숨 걸고 국경 넘는 북한 꽃재미들

북한이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국경 접근자에 대해 사격 명령을 내렸지만,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꽃재미들은 감시의 눈을 피해 중국 국경도시로 넘나들고 있다고 테일리 NK가 최근 보도했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무리를 지어 강가에 가서 고철이나 플라스틱 물병을 줍고 다니다가 밤에 몰래 중국에 넘어가 농작물 등을 훔치는 등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들은 탈북 보다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다고 전해 진다.

- 영국, 북한 국제간첩망 암호 체계 모두 해독
영국 첩보기관이 북한의 암호를 완전히 해독했다고 미레한국이 최근 보도했다. 영국 국방부 사이버 대응팀은 북한 암호 체계를 해독하는 데 6주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이는 망명한 북한 간첩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영국 테일리 익스프레스가 전했다.

- 한국의 교회가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하고, 북한 지하교회의 부흥이 속히 일어나 북한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 에티오피아 내전 확산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내전으로 중앙, 지방 군사조직의 교전 속에 민간인 집단학살, 민생과 직결된 기간시설 공습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아비 아메드 에티오피아 총리가 군사작전을 지시한 뒤 교전이 격화됐고 민간인 피해도 급속히 늘어났다. 지난 열흘간 민간인이 최소 수백명 살해됐다는 보고가 나왔다. 정부군의 공습을 피해 수천, 수만명이 이웃국 수단으로 피란길에 올랐으며 급기야 14 일에는 이웃국가 에리트레아의 수도 아스마라가 TPLF 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 투르크메니스탄-국민은 배춧데 금덩이로 거대 반려건 동상

중앙아시아의 최빈국으로 꼽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이 국민은 굶주림에 떨고 있는데 황금으로 대형 반려건 동상을 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

13 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지난 10 일(현지시간)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토종견 '알라바이'를 본뜬 거대 황금 동상의 제막식을 진행했다.

황금빛 동상은 높이만 무려 6m 에 달할 정도로 웅장하다고 한다.

† 모잠비크, 무장 세력 공격으로 수십명 사망

모잠비크 북부지역에서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수십명이 사망하고, 납치, 방화 등이 일어났다고 오픈도어선교회가 최근 전했다. 지난 11 월 6 일, 무장 세력은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주 에 있는 파코피아 마을로부터 16km 떨어진 난자바(Nanjaba) 마을에 한밤 중 들어닥쳐 공중에 총을 쏘면서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를 외쳤다. 이어 그들은 집들에 불을 질렀다. 이 지역에는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다. 이에 오픈도어선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가 이곳 성도들에게 임하고, 희생과 재난을 당하고 충격을 받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달라"고 밝혔다.



- **정부의 종교 규제, 아*태 대폭 증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매우 심각** : 전 세계에서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종교 제재가 높은 수준이며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한 종교 제재와 관련된 11 차례 연구조사 결과 2017 년부터 2018 년까지 상대적으로 '증가'는 완만한 추세였지만, 10 년 넘게 종교에 대한 정부 규제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쿠바 정부, 그동안 허가 했던 하나님의 성회 교회 철거** : 지난달 31 일 쿠바 국가안보부가 아벨 산타마리아에 위치한 하나님의성회 교회 (Assemblies of God Church) 를 중장비와 불도저를 동원하여 파괴했다. 미국무부는 지난해 12 월 쿠바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나라로 '특별 감시명단'에 올렸다. 이후 쿠바 경찰은 담임 톨레다노 목사를 경찰서로 연행했으며, 현재 그는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다. 미국무부는 지난해 12 월 쿠바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나라로 '특별 감시명단'에 올렸다.

인도네시아 군부, 서역 번역 목사 고문하고 살해

인도네시아에서 성경 번역 목사가 군 당국에 의해 고문을 받다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지난 9월 19일에 살해된 인도네시아 복음 성막교회 담임인 예레미아 자남바니(67) 목사가 도난 당한 군사 무기에 대한 정보를 빼내려는 군부에 의해 고문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을 통해 밝혔다.

파푸아의 '모니(Moni)'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한 것으로 알려진 자남바니 목사는 총상을 입고 왼팔은 거의 잘린 채로 돼지우리에서 발견됐다.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목사의 시신에는 날카로운 흉기로 인한 상처도 발견됐다.

한때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파푸아는 1969년 인도네시아의 통제를 공식화한 '자유선택법'이 통과된 이후, 군부와 파푸아 분리주의자들 사이에 대립이 이어져왔다. 특히 이번 자남바니 목사의 살해는 인도네시아 교회연합회가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정도로 현지 기독교인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지역에서 존경받던 자남바니 목사가 살해되자 당시 인근의 히타디파 주민 1100명도 숲으로 피신했다.

파푸아 인도주의 팀원인 하리스 아즈하르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토록 존경받는 성직자가 살해되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민들 역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가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반면, 파푸아는 인구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Prayer

- 박해 받고 있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해 중보 해 주십시오.

종교 갈등에서 비롯된 테러단체의 무차별 공격으로 프랑스를 비롯하여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 곳곳이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지난 2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선 카불대학 내 테러로 22명이 숨졌고 2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테러는 카불대에서 이란 관련 도서전이 열리고 있을 때 발생해 피해가 컸으며 사망자 대부분은 학생입니다. IS는 이번 테러는 자신들이 저지른 공격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카불에선 지난달 24일에도 교육센터에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학생 등 24명이 숨졌 으며, 당시에도 IS는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바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날 (2일) 오스트리아 예서는 수도 빈 시내 중심가 유대교 회당 인근을 비롯해 시내 중심가 6 곳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에이피 통신, 2 일) 오스트리아 당국은 도심 총격사건 용의자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라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을 “명백한 테러”로 규정했고 이와 관련 “반유대주의 배후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9일에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외곽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의 공격으로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 † 하나님 아버지, 종교분쟁으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극단적 무슬림들의 테러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총기 테러 사건으로 총격과 공포로 혼란스러운 프랑스, 아프간, 오스트리아, 이라크를 다스려 주옵소서.
 - † 이들이 무엇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테러를 하며, 서로 무력 충돌하며 분쟁하고 있겠습니까, 종교 분쟁으로 거짓에 매여 헛된 일들로 목숨을 바치는 이들이 회개 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를 주옵소서.
 - †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전해져 수니파와 시아파의 거짓이 완전히 벗겨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찢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모든 민족이, 하물며 테러를 쉬지 않는 IS에 가담한 자 들까지도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참 구원을 맛보게 하옵소서.
 - † 마지막 시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만 온 땅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들이 복음 전하기를 더욱 부지런하게 하셔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가이사랴

이스라엘 뉴스



[krm news, 연합뉴스 제공]

- ☆ 이스라엘 하다사 병원에서 코로나 19 치료를 받고 있던 팔레스타인 최고위 평화협상가 사에브 에레카트가 사망했습니다. 에레카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무총장은 1993 년 오슬로 협정 때부터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을 주도해왔습니다.
- ☆ 이스라엘이 중국을 **그린국가**로 전환하고 14 일 자가격리 기간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반면 코로나 19 감염률이 높은 덴마크는 **레드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자가격리 기간을 금요일부터 14 일에서 12 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미국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미 대사관을 다시 텔아비브로 옮길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는 평화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단 오바마 행정부 때에 중단된 사안들을 기점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중단시킨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 원조금도 재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 이스라엘 정부가 종교적 분쟁지 동예루살렘에 새로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15 일(현지시간) 동예루살렘 내 기바트 하마토스에 주택 1천 257 채를 건설하기 위한 입찰을 개시했다고 이스라엘 언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기바트 하마토스는 이스라엘 정부가 2012년 처음 유대인 정착촌 계획을 발표한 뒤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지역입니다.
- ☆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12 일 평화유지군 헬기가 추락해 7 명이 사망하고 1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시나이반도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평화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평화유지군(MFO) 측은 사망자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1.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1]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47:1~7]



1.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2.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3.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찢매시는도다
4.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5.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6.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7.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이다. 아멘!

-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상처를 찢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600 명대로 떨어지면서 6 주만에 거리 상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8 백만 개 확보했다고 말 했고, 내년 1 월 이스라엘에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 리더 나스랄라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트럼프의 남은 현 임기 2 달 사이에 레바논을 폭격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출처, KRM NEWS).

“시온아 여호와와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시 146:10). 아멘!

- 현재 이스라엘 인구 100 명당 3 명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된 것으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침체 되었던 경제도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 12 월 23 일까지 연기된 예산안이 잘 통과 되게 하시고 정치적인 안정을 주옵소서.
-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붙 들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 이스라엘 지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를 계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게 하옵소서.
- 이스라엘이 복음 안에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주권과 통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3] 주변 국가들과 평화 하게 하옵소서.

- ☆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가 개선되게 하시며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 ☆ 인도적 지원과 교류를 통해 상호 관계가 개선되게 하시며, 팔레스타인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 ☆ 팔레스타인 땅의 소수의 믿는 이들을 지켜주시며, 이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 ☆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에 헤브볼라가 판 지하 땅굴 5 개가 발견 되오 폭파 되었습니다. 레바논의 테러단체인 헤즈볼라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며, 이란과의 악한 연대가 끊어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어리석음에서 자멸하게 하옵소서.
- ☆ 터키가 현재 이란처럼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터키의 도시라고 발언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터키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 ☆ 이스라엘을 향한 주변국의 위협과 테러, 사이버 공격들이 무력화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과 중동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옵소서.

< 미국내 유대인들의 속 마음은... >

미국에서 최대 600 만명으로 평가되는 유대인들은 이전부터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했다. 현재 연방 상원의원 중 9 명이 유대인인데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하원의원 중에서도 유대인 27 명 중 26 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공화당 소속은 단 1 명뿐이다. 민주당 소속 유대인 정치인들은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을 위해 주요 길목에서 활약하였다. 대선후보 경선에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버니 샌더스(79) 상원의원이 대표적으로, 그는 반트럼프 정서에 불을 질렀다. 뉴욕시장을 지낸 거부 마이클 블룸버그(78) 역시 반트럼프 캠페인에 1 억달러를 지원하였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안보보좌관으로 확실시되는 인물인 앤서니 블링켄(58) 전 국무차관 등 주요 참모들 가운데도 유대인이 많다. 심지어 최초의 여성 유색인 부통령이 될 카멀라 해리스(55) 상원의원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55)도 유대인이다. 트럼프 비판의 선봉에 섰던 CNN의 제이크 태퍼, 울프 블리처를 비롯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의 중견 언론인 가운데에도 유대인이 많다.

보수 성향의 트럼프는 오히려 적극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추진했다. 이스라엘의 숙원이었던 현지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도 결정했다. 이스라엘 안보에 큰 위협이 되었던 이란을 상대로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핵협상을 폐기하고 제재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국가들과의 수교도 주선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고 이스라엘 언론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은 트럼프 비난에 집중한 미국 언론들로부터는 외면당했다.

그렇다면, 왜 미국내 유대인들 무엇 때문에 적극 트럼프 행정부를 돕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2019 년 12 월 폴 크루그먼(67) MIT 경제학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 잘 드러난다. 미국 유대인들은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백인 우월주의가 많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들은 **인종에 대한 편견이 유행하면 자신들은 또다시 희생자가 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 기도합니다...

- 반유대주의 인한 유대인들의 오랜 상처를 치유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안전한 길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옵소서.
-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이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II. 이스라엘의 회복과 긍휼을 위해 기도 하라

[1] 열방에 남아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 ☆ 하나님 아버지, 글로벌 Covid-19 팬데믹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올해 16,000 여 명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 특별히 젊은이들이 돌아와 군복무와 공부를 하며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육부를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들을 바로 교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 ☆ **에스겔서 36 장 25, 26 절** 말씀으로 젊은 학생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영을 저희 마음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 ☆ 성령님 저들 속에 역사하셔서 눈과 귀를 열어 주시고 마음으로 유대인 예수야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젊은이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 주옵소서.

[2]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열방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듣게 하옵소서.

- ☆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영국, 아르헨티나,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아프리카를 비롯한 열방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반유대주의로부터 지켜 주시며, 귀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 ☆ **특히 러시아의 유대인 자치주에 있는 유대인들과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귀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 ☆ 이방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목자가 양 떼를 돌보며 같이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로하며 축복하는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 ☆ 알리야 한 유대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 ☆ **예수님을 믿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도 귀환할 수 있도록 귀환법이 개정되게 하옵소서.** 믿는 유대인들이 귀환하여 이스라엘내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는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 ☆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알리야 사역을 섬 기는 단체들을 통해서 더 큰 기도의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벤에셀, 주이시 에이전시, 네페쉬 베네페쉬, 샤베이 이스라엘의 귀환 사역과 섬김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렘 32:41). 아멘!

이스라엘보다 넓은 러시아 유대인 자치주

- 스탈린 민족정책에 의해 극동에 설립...시나고그등 유대문화 많이 남아

2천년동안 세계를 유랑하던 유대인들은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 5월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꿈에도 그리던 유대인국가 이스라엘을 건국했다. 그보다 14년전인 **1934년 러시아 극동지역에 유대인 자치주가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위치로 보면 한국과 거리가 가깝다. 만주 해이룽장성 북쪽, 아무르강에 접해 있는 곳에 스탈린에 의해 유대인 자치주가 만들어진 것이다. 스탈린은 시베리아 지역에 젓과 꿀이 흐르는 유대인의 땅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곳은 젓과 꿀이 흐르지 않았다. 대체로 늪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혹독한 자연조건과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뿐 만 아니라, 이 곳 주민들은 1938년 반유대주의 정책을 편 스탈린 치하에서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도 시인, 배우 등 유대인 다수가 체포되거나 총살당했다. 탄압과 규제는 스탈린이 죽고 후르시초프가 등장하면서 조금씩 풀려지게 되었다. 유대인 극장이 다시 생기고 유대인 학교도 부활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으로 이주하기 선호했다.

1938년엔 4만명 거주...현재는 1만 5000명

[유대인은 자치주 전체 인구(21만명)의 약 7%인 1만 5000명, 주도인 비로비잔에는 5000명쯤으로 추정]

초기에는 유대인 인구가 4만명으로 인구의 25%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탈린 사후에 이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유대인 정통국가인 이스라엘의 건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유대인 자치주의 주민들이 뿌리를 찾아 이스라엘로 이주하였고 결국 이 지역의 유대인 인구는 급감한다.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갔고 그들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주로 아무르제트, 스비노비치 등에 거주하였으며 그 전통의 흔적은 지역 이곳저곳에 남아있다. 각종 간판이 러시아어와 이디시어(동유럽 유대언어)로 병기되어 있고, 역 앞에 유대인들의 상징인 메노라가 있다. 유대인 회당인 시나고그도 존재한다.

또 1930년대에는 이디시어 신문인 '비로비자너 슈테른'이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1980년에는 이디시어 학교가 세워졌다. 또 이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갖가지 관심을 배울 수 있도록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출처 :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

- ☆ 유대인 자치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속히 고토의 땅으로 알려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II.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왕하 21:4)
“¹³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¹⁴ 이는 내가 영원히
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으로다”(시 132:13~14). 아멘!

-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과 거짓과 저주를 태워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 성전산과 예루살렘을 덮고 있는 이슬람의 영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시며, 이슬람 기도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잠잠케 하옵소서.
- 미혹의 영이 메시아닉 주 교회에 틈타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부어 주시며,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 거룩한 도성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2]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성경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³⁶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³⁷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행 2:36~37). 아멘!

- 하나님 아버지! 많은 유대인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과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 이스라엘의 정치인, 랍비, 정통유대인, 세속유대인, 군인과 청년, 알리야 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꼬!” 영적
애통이 있게 하시며 세례받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 공활의 하나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3] 구원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나팔소리가 유대인 각 사람의 심령에 큰 나팔소리로 울려퍼지게 하옵소서.
-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페아쉐아림 지역과 브네이브락 지역에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때처럼 하루에 삼천 명, 오천 명, 큰 무리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왕의 백성들이 왕의 도성에서 깨어 일어나 왕의 귀환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뉴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 믿는 유대인 단체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포이스라엘, 이스라엘 바이블 칼리지, 리바이브 이스라엘, 로에 이스라엘 교회와 네티비야 성경연구소, 남부 도시
아라드 광야의 메시아닉 주 공동체, 아코의 중독자 치유 공활지역, 텔아비브의 두깃선교회와 하스네하보에르 공동체,
티페렛 예슈아 공동체, 하이파의 리턴 투 시온, 러시아어로 방송되는 메시아닉방송인 오아시스미디어 TV,
브엘쉐바의 예슈아의 유업 공동체, 아쉬돗의 베잇 할렐 메시아닉 공동체, 아쉬켈론의 게세르헤세드교회, 나하리아
가정교회, 러시아 주 가정교회들,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온 믿는 유대인 공동체, 리손레찌온/하이파/아폴라 지역에서
새벽기도회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4]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면에서 압력을 받습니다. 그들은 대개 사회적 지위가 낮고 직업 발전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에서 온 기독교인 개종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족들로부터 기피를 당하고,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서 이슬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과 지방 정부의 폭력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살 곳을 찾고 직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페시아 닉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장소를 찾고 허가를받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통 유대인 단체, 특히 Yad L' Achim 은 때때로 예배당 밖에서 항의하여 기독교인을 저주하고 건물을 파괴합니다.

- † 어려움 가운데에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 † 폭력과 핍박을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화로 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 † 믿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 † 강권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모든 이스라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지으신 그 뜻대로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파란색:



이스라엘에서 파란색은 '하늘의 색이며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이 파란색 실은 흔치 않았으며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많이 자라는 달팽이 내 아가미 샘에서 분비되는 맑은 체액을 원료로 색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표현해야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어떤 '형상'으로서의 여호와가 아닌, '색깔'로서, 즉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색'인 '파란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대부분의 것에 '파란색'을 사용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쓰이는 기물을 덮을 때, '파란색 보자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의 겹옷은 흰색이었지만, 대제사장의 겹옷은 반드시 '파란색 예복'을 입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몸을 덮는 용도로 쓰이던 '탈릿'이라는 겹옷이 있었는데, 그 겹옷은 유대인 성인 남자라는 표시인 일종의 '기도보'입니다. '탈릿'의 아래 부분 네 귀퉁이에 '술'(tassel)이 달려 있습니다. 이 '술'을 가리켜 '찌찌트'(Zizit)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민수기 15:37-41에 근거하여 반드시 '탈릿'에 파란색 실을 함께 보아서 만든 '찌찌트' 즉, '술'(tassel)을 달아야합니다. '술 장식'은 모두 39번을 감아 올렸는데 이는 히브리어 "주님은 한분이시다"라는 글자의 숫자와 같은 것입니다. 부지중에 짓는 죄를 지을 때, 이 '찌찌트'를 보고 다시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유대에서 성인이 된 13세부터, 찌찌트가 달린 탈릿을 덮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특권을 그날부터 평생 행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민수기 15: 38-40)

출처 : 뉴스제이 (<http://www.newsjesus.net>)

이 번 주간은 추수 감사절이 있는 주입니다.

서양 격언은 "상처는 모래에 쓰고(write your hurts in the sand), 은혜는 돌에 새기라(carve your blessings in stone)"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판에 새기고 감사로 채우는 11 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 103 편

- 
-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찌어다
 3.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4.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6.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7.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8. 여호와께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11.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5.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7.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18.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19.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20.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것 없이 단지 입으로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위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마 15:8)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위험을 알고 있으며,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 John Piper >

גמול

게물

은택

시 103 편은
다윗의 찬양시로서 문학적
가치나 내용이 전체 시편의
백미로 꼽힐 만큼 뛰어나며
시편 23 편과 함께 가장
사랑 받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בָּרַךְ

바라크

송축하다

(1) “여호와를 송축하라(1)”

시인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선포합니다(1 절). 다윗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릎을 꿇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입술의 고백 만이 아닌 마음을 다한 믿음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2) “은택의 하나님(2-5)”

그런데 이런 믿음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2 절). 한자적 표현으로는 못에 가득한 은혜를 뜻합니다. 셀 수 없이 그 은혜가 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 ‘게물’은 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격이 있어서 주신 보상(Reward)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리신 선물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받은 가장 큰 은택은 바로 ‘용서’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홀로 덮어주신 용서, 즉 구속의 은혜입니다. 죄에서 구속하시고 일생을 통해 영육을 고치시고, 인자와 공홀로 그 삶을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셨으며, 그를 독수리처럼 강하게 회복 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4~5 절).

(3) “공홀의 하나님(13-18)”

אָרַךְ

아레

경외하다

연약한 인생이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공홀히 여기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티끌처럼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선물하시고 그 이름이 기억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 9:10)

(4) “여호와를 송축하라(19-22)”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그분의 통치는 만유에 충만합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천사, 하늘 군대, 그리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때사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생명과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송축하며 감사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중보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선포기도

1.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슈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 큰 임금의 도성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왕 예슈아의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 예루살렘을 나누고 왕의 귀환을 막으려는 세력들은 스스로 분열하여 붕괴될지어다
-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주변국가들을 지원하는 페르시아의 세력은 끊어질지어다!
-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벽 위의 파수꾼이 될지어다!
-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숭배의 소리는 끊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아멘!

2.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슈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 이스라엘내 교회마다 영혼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기적들이 매일매일 충만할지어다!
- 이스라엘 대학 캠퍼스내에 유대인 예슈아를 알고자 하는 운동이 유행처럼 일어날지어다! 아멘!

3.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슈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 올해는 세계 전 지역 유대인 알리아에 대 전환점이 될지어다!
-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전세계 유대인들은 문이 닫히기 전에 속히 고국으로 돌아갈지어다!
- 전 세계 모든 한인교회 성도들은 알리아의 깃발을 보고 이스라엘 선교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4.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슈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 아랍지역 어린이와 여자들을 묶고 있는 억압의 사슬들은 모두 붕괴될지어다!
- 아랍지역 어린이와 여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 세계를 뒤덮고 있는 동성에 더러운 영들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아멘!

5.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슈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 한국교회 안에 이스라엘을 바로 이해하는 개혁의 바람이 불지어다!
- 북한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배후의 악한세력들은 스스로 분열하고 붕괴될지어다!
- 북한에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회복되어 복음이 크게 확산될지어다! 아멘!

6. 만왕의 왕이시요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 예슈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 일루미나티, 예수회, 프리메이슨, 종교통합등 세계단일정부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드러날지어다.
-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분별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고 깨어있게 될지어다.
- 우리 주님 예슈아 메시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계선교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이 모든 간구를 메시아 예슈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GMI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

김목사님	1. For opening of the new 100 Churches in the cities of Israel and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of Israel. 2. For opening of the new 3 Churches in the cities of Israel 3. For 6 churches in the cities 4. For Israel Spiritual Seminary: remodeling of the premises and equipment for the students (desks, chairs, cabinets, board, beds and etc.); 5. For 29 students who study in Seminary; 6. For 12 students of new stream of the Seminary
유목사님	1. 이스라엘 도시들(Acre, Haifa, Netanya, Ashkelon, Sderot)의 셀 리더들을 위해 2. 이스라엘 각 도시들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목사님	1. 귀가있어도 복음을 듣지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못하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야가 예수아(예수님)임을 깨닫고, 믿도록. 2. 최근 몇년동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지만, 그 사실을 나타내면 가정과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나 홀로" 믿는 사람들과 랍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이 참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3. 참된 아랍 기독교인들의 총명한 수가 되도록. 4. 많은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겉모습이 달라지면 내면도 변화되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 즉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새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제대로 부딪혀졌다면 그 복음의 결과인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변화를 크게 오해합니다. 만족스런 상황과 조건 속에 있게 된 외적인 변모를 변화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을 변화라고 여길 경우, 진정한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증명됩니다. 만약, 내가 바라는 상황과 조건이 주어졌다고 그것이 영원할까요? 우리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 원인을 ‘부모를 잘못 만났다.’, ‘결혼을 잘못했다.’와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의 간증을 많은 이들이 주목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조건이 완전히 바뀌어도, 그 마음 중심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는 없습니다. 몸은 교회에 다니며 집사, 장로, 심지어 선교사, 목사와 같은 사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외형적인 변화로 자신도 속고, 타인도 속일 수 있습니다.

또 진심만의 변화는 참 변화가 아닙니다. ‘전심’과 ‘진심’은 비슷해보여도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전심이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말 그대로 100%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진심은 마음의 깊이는 있으나 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진심을 담아 골똘히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진심은 다른 것에도 동일한 진심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나서 손님 접대한다고 술집에 가서 진심으로 술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은 오직, 그것 하나만을 온 마음을 다해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청년 관원이 진심으로 영생을 구했지만, 돈인지 영생인지 택하라고 했을 때 고개를 떨구고 돌아선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거룩도, 영생도 취하고 싶고, 재밌는 세상 유희과 정욕도 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양 손에 모든 것을 쥐고서는 전심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초점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며, 인간의 존재적 변화입니다. 당신은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바뀌었습니까?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 김용의 2017〉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World Prayer Center

기도지 제작: 은혜교회 중보기도국
www.gracewpc.com
prayforgrace82@gmail.com